



◇연동행렬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델로스 타워.

‘원더풀 데이즈’ 어떤 영화?

△제작 : 제작사는 삼성벤처투자(주)이며, 7년간 126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제작비용을 경신한 애니메이션 영화다.
△촬영기법 : 2D·3D·미니어처 실사까지 멀티매이션 기법이 사용됐다.
△용량 : 37지 방식의 이미지를 한정면에 합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주일, 완성본의 전체 용량은 2만 기가바이트다.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100기가바이트인 컴퓨터 20대 분량이다.
△줄거리 : AD 2142년. 오염물질들을 태워 에너지를 얻은 남태평양의 도시 에코반에 침입자가 발생한다. 에코반 순찰대원 제이는 그가 자신의 첫사랑인 수하임을 알게 된다. 한편 대기가 맑아지면서 에코반의 에너지원도 점차 줄어들자 위기를 느낀 에코반 권력자들은 난민들의 터전인 마르를 태워 에너지를 충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운다.



◇주인공 수하와 제이가 전투에 참가하는 장면.

“내가 살고있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

국산대작 ‘애니’ 영화 ‘원더풀 데이즈’ 김문생 감독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김문생 감독.

원더풀 데이즈(Wonderful Days),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과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17일 개봉하는 국산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의 김문생 감독(42)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며, 아름다운 마음을 먹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요.”라며 영화의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서기 2142년 사실 섬을

물들은 전통적인 2D 셀 애니메이션, 전투기와 오토바이 같은 탈 것들과 배경 일부는 입체적인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졌으며 배경과 건물은 미니어처를 제작해 촬영한 것이다. 그래서 실사영화를 연상시키는 사실감과 질감이 최대한 반영된, 기존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의 빛깔과 영상을 창조했다. 이 영화의 배경은 태양빛을 보기 힘든 서기

했지만, 그 덕분에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웅장함과 깊이를 담아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 에너지 전쟁이 지구를 휩쓴 이후의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스토리가 단순하고 상투적이라는 평론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영화라는 장르는 90분 동안 화면을 통해 즐기는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헐리우드식 영화처럼 스토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줄바에는 차라리 책을 자세히 읽는 것이 낫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 영화에는 김 감독이 좋아하는 불교적인 소재들이 간간히 눈에 띈다. 암호 내용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뜻으로 사용했는가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컨트롤 룸인 델로스 타워는 부처님오신날 뱃님 강남 봉은사의 연동행렬에서 따왔다. 가짜 인터뷰 하러 갔던 날에도 김 감독은 ‘법정 스님의 인도기행’을 손에 쥐고 있었다. 실제로 영화를 시작할 때 <금강경>을 읽었을 정도로 불교를 좋아한다고 했다.

“내 머리위에 있는 하늘을 한겨울 벗기면 그것이 바로 ‘원더풀 데이’입니다. 영화 한편으로 모든 관객들을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영화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제가 기획한 의도를 눈치 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며 미소짓는 김 감독은 시대에 SF적 요소를 섞어놓은 차기 작품을 구상 중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2142년 배경 전쟁·사랑 그려...17일 개봉

7년간 126억 투입, 새영역 색채·영상 창조

배경으로 전쟁과 사랑을 그리고 있는 ‘원더풀...’은 기획까지 합하면 제작기간 총 7년, 참여 스태프만도 350명에 달하며 제작비는 126억원이 소요된 대작이다. 유난히 긴 제작 기간은 ‘원더풀 데이즈’가 2D와 3D 애니메이션, 미니어처 실사 촬영 등 3가지 방식을 합성한 ‘멀티매이션(Multi-mation)’ 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등장인

2142년의 미래, 오염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특권층의 도시 에코반과 식민지 같은 마르가 주무대. 푸른 하늘을 되찾으려는 수하, 그의 어린시절 친구이자 현재는 에코반의 정찰대원인 제이, 제이의 동료이자 수하와 라이벌적인 시몬이 주인공이다.

CF감독 출신인 김 감독은 “화면에서 안개가 흐르는 장면을 얻기 위해 미니어처 세트장에 스모그를 뿜어놓고 찍었다. 그 위에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인물들을 덧입히는 작업이 고되긴



◇8일 방영된 ‘인체의 파수꾼-늙차’의 한 장면.

늙차 인체노화 막는다

KBS1TV, 다큐 ‘생로병사의 비밀’ 방영

안 꾸준히 늙차를 마신 사람들은 심장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옥시다이아이드 LDL’과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지표 중 하나인 ‘피신크링’의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늙차의 효능은 바로 늙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비타민C 보다 항산화 성분이 40배 더 강력한 카테킨 덕분에

늙차는 항암작용과 항균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작진은 늙차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찻잎까지 먹을 것을 권한다. 차를 물에 우려 마실 경우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는 3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찻잎을 이용한 음식이나 말차를 이용한 요리법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늙차를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조언한다. 위장이 약하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마시고 카페인이 민감한 사람은 하루 10잔 이내로, 임산부는 하루 5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다. 이 프로그램은 KBS 인터넷 홈페이지(www.kbs.co.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여성영 기자

요즘 늙차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 1TV 의학 다큐멘터리 ‘생로병사의 비밀’이 마련한 연속기획 4부작 ‘노화방지를 위해 먹어야 할 4가지’ 제2편 ‘인체의 파수꾼-늙차’는 최근 인기 있는 늙차에 대한 관심과 그 효능을 밝혀 봄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일본의 늙차마을 나카가와네. 생후 6개월 때부터 늙차를 마시는 나카가와네 마을 사람들은 일본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식습관을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효능을 살렸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늙차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보여줬다. 출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주 동

항암·항균작용... 찻잎까지 먹어야 위·신장질환 있으면 의사와 상담후



◇관세음보살도 앞에 선 이순단씨.

“서예박물관 건립 마지막 발원”

통일서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기념 서예전 연 이순단 씨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해 11일까지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전시회를 가졌던 이순단씨(61). 이 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일 본책에서 우연히 본 보살상을 보고 그랬다는 ‘관세음보살’을 비롯해 ‘불심(佛心)’ 등 1백여 작품을 선보였다. 신림동 보명사와 강남 봉은사를 오가며 불심을 키워온 이순단씨는 문인화, 경명주사로 쓴 세익스피어의 시 등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 이번 전시회에 이어 내년에는 불교사상이 흐르는 그림과 글씨를 펼쳐 보이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내비쳤다.

“그동안 제작해 온 작품 1천여점을 모아 서예 박물관을 만드는게 마지막 발원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06:05 불교경좌
10:00 라디오법회(일)
12:20 백팔가요
16:45 불비니동산
21:25 BBS초대석
10:05 영화음악실
11:05 삶머 생각하며
16:11 07:40 아 부처님이다
17:12 12:20 이화숙의 노래교실
18:11 23:35 다스스페셜 삶과 예술
19:11 09:20 설수진의 러빙유
20:11 14:10 최완수의 불교문화바로알기
21:11 08:30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
22:11 13:20 덕신 스님의 사찰문화여행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20일 11:05)->시인 황청원과 함께 삶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일요일 시간은 옛날 신문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 보는 <옛날 신문을 읽었다>, 청취자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사는게 편지> 등의 코너로 꾸며진다.
■불교텔레비전: <설수진의 러빙유(19일 09:20)->한성대 의생활학부 이기향 교수편, 불화의 이미지를 웃으로 승화시켜 불교와 패션의 만남을 시도한 이기향 교수가 출연해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깨달음의 향기를 만나러 가는 연꽃테마기행 "함께 해요"
불교문화상품 전문 쇼핑몰 마하몰
문의 및 접수 : 02)732-1520 www.mahamall.co.kr
기행일시 및 인원
▶ 기간 :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 시간 : 오전6시30분 출발~오후8시 도착
▶ 인원 : 선착순 200명
참가비
▶ 4만5천원 (아침, 점심,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포함)
참가방법
▶ 문의 및 접수 : 02-732-1520
▶ 입금통장(농협 053-12-113210 예금주 : 하동규)
* 단체할인 : 10인이상 신청시 10% 할인 적용
기행코스
청운사 백련지, 인취사 백련지, 상록리조트 세계연꽃축제